

#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가정자원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 Caregiving Stress in Caring for Dementia Elderly according to Family Resource in Homemakers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장윤옥\*\*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Prof.: Jang, Yoon-O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egree of caregiving stress in caring for dementia elderly according to objective resources, perceived adequacy resource and locus of control in homemak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1 married women who had cared for dementia elderly. A questionnaire was used as survey method.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Cronbach  $\alpha$ , factor analysis, MANOVA, and Scheffé test.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aregiving stress in caring for dementia elderly according to objective resources.

Second, the degree of caregiving stress in caring for dementia elderl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perceived adequacy resource.

Third, the degree of caregiving stress in caring for dementia elderl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locus of control.

▲ 주요어(Key Words) : 치매노인(dementia elderly), 가정자원(family resource), 가정자원적정도지각(perceived adequacy resource), 부양스트레스(caregiving stress)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산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국가와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상호작용을 하여 가족들이 노인부양에 대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노부모에게 치매나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

환이 있다면 자녀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이은희, 1997).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특히 치매는 만성소모성 질환으로써 그 특성상 장기부양의 가능성이 크고, 가족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를 보살피는 전문적인 시설이나 이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치매노인 부양자는 자신의 가정생활 여건이 치매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합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내에서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부양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주부가 주부양자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권중돈, 1994)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주부양자 혼자만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정현숙, 1998). 또 치매를 정상적인 노화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 때문에 대부분의 주부들이 가정에서 치매노인의 주부양책임 뿐

\* 이 논문은 2002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장윤옥(E-mail : yojang@kun.ac.kr)

아니라 가사노동과 가정관리의 책임도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가족구성원보다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겠다.

치매노인을 모시고 사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때 부양자가 부양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스트레스원은 같아도 이로 인해 지각되는 부양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정도는 각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소유·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인들 중 가정자원은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장운옥, 1997; 전세경, 1988; 최연실, 1996)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정자원은 유한하다. 특히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부양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치매노인을 부양함과 동시에 가족구성원들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치매노인 부양자에게는 가정자원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더욱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더불어 치매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다른 일반주부들보다 치매노인 부양주부들에게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한편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노인과의 관계와 동거여부(Fitting, Rabins, Lucas & Eastham, 1986; George & Gwyther, 1986)와 같은 인적자원, 확대가족원들의 지지 정도와 유료 서비스의 활용(Pratt, 1987)과 같은 사회적 지지 자원 및 물적자원 등 다양한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권중돈, 1994),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스트레스(김윤정, 1994), 치매노인의 문제행동과 가족스트레스와의 관계(마정수, 1995) 등과 같이 치매노인의 건강상태와 부양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치매노인 부양자의 가정자원과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김태현·전길량, 1996)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부의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각 가정이 소유한 가정자원의 양과 질, 그리고 그 종류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가정자원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가정자원을 구성하기(전세경, 1988) 때문에 가정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뿐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 역시 치매노인 부양주부

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정자원의 다양한 측면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영역적인 개념인 부양스트레스가 여러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양스트레스도 치매노인의 신체적 증상, 문제행동, 유병기간, 부양주부나 친인척이 소유하거나 지각하고 있는 가정자원의 질과 양 등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하위영역이나 각 하위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정도가 서로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스트레스를 각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변인에 따른 각 하위영역에서의 부양스트레스 정도를 규명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자원을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가정자원, 주관적인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그리고 개인의 행동과 성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Hooyman & Kiyak, 1988)인 통제소재로 세분하여 이들 각각의 가정자원에 따른 치매노인 부양자의 각 하위영역에서의 부양스트레스 정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부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들도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변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부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정자원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스트레스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에게 정보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정서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 가족 및 친인척 지지, 노인과의 관계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는 객관적 가정자원(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인적, 물적, 지역사회자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는 주부의 통제소재(내적통제집단, 외적통제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용어의 정의

1) 치매노인 : 의료기관에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치매라고 여겨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부양스트레스 : 부양자가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부담감, 긴장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 가족 및 친인척 지지, 노인과의 관계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3) 객관적 가정자원 :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은 수단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의미한다.

4) 가정자원적정도지각 : 주부가 가정내·외의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자원에 대해 걱정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물적, 지역사회 자원 영역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에서의 적정도지각 정도를 측정하였다.

5) 통제소재 : 주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성격특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인을 운이나 우연, 자신의 의지, 외부의 강력한 힘이나 운명에 귀인시키는 정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뒤 내적통제집단과 외적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가정자원

가정자원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거나 그 잠재력을 인정받은 수단으로 모든 문제해결의 필수적인 요소(Deacon & Firebaugh, 1988)이다. 가정자원은 각각의 특성이 매우 독특하고 그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가정자원이 단독으로 사용되어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도 하고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가정자원이 서로 결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자원은 특정한 요구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서로 달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자원이 필요하며, 객관적인 자원보다 가정자원에 대한 주부의 주관적인 의식과 지각이 더 중요하다(서리나, 1994; 조영희, 1991; Rowland, Dodder & Nickols, 1985). 더구나 현대사회의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요구, 목표가 더욱 다양화되고 표준이 높아져 가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정내부의 자원만으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은 가정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이 획득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 1994), 지역사회 자원 역시 주요한 가정자원이 될 수 있음(차성란, 1997)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듯 최근의 가정자원에 관한 연구들(서리나, 1994; 이명숙·이정우, 2000; Rowland et als., 1985)은 가정자원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경숙·이정우(1995)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직업, 소득을 객관적 자원으로, 그리고 이들 자원에 대한 자원적정도지, 생활정보활용도 등을 주관적 자원으로 분류하여 취업주부

의 객관적·주관적 자원이 주부의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영호·최희선(1993)은 가정자원을 개인적 자원, 체계내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그리고 개인적 자원을 다시 재정적 안정, 인지적 자원, 건강, 그리고 자기통제력을 의미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분류하고 이들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들 자원에 대한 주부의 만족도를 함께 측정하여 주부의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한편 Pearlin과 Schooler(1978)는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의 성격특성을 의미하는 심리적 자원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가장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또 장윤옥·정서린(1997)은 주부들이 스트레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나 문제상황을 자신이 통제·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적통제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즉, 통제소재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로서 가장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인지적 특성(신은영·김경연, 1996)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자원을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월소득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가정자원, 인적·물적·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가정자원적정도지각, 그리고 개인의 행동과 성격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인 통제소재로 분류하고자 한다.

### 2.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부양스트레스란 용어는 고령이거나 질병을 겪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언급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George & Gwyther, 1986) 용어로서 부양 상황이나 역할, 행동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부양자 개인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영역적인 개념이다.

부양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은 크게 부양자가 노인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부양스트레스로 보는 관점,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하는 선행요건으로서의 부담감을 부양스트레스로 보는 관점, 노인 부양이 여러 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부양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주현희, 1999). 현재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은 부양의 영향이나 결과로서의 개념(권중돈, 1996)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Novak와 Guest(1989)는 시간적 부담, 발달상의 부담, 신체적 부담, 사회적 부담, 정서적 부담으로, 이은희(1998)는 개인적·사회적 제약, 육체적·정서적 건강, 부양에 대한 가치, 노인과의 관계상의 스트레스, 경제적 비용으로, 그리고 이영

속·박경관·전귀연(1999)은 사회적 활동의 제한, 노인-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가족관계의 갈등, 정서적·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신체적·정신적 건강 부담, 발달상의 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주요 지지체이면서 동시에 숨겨진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은 암환자를 부양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며(Clipp & George, 1993),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앓기도 한다(Pruchno & Resch, 1989)고 보고되고 있다. Zarit, Reever 그리고 Bach-Peterson (1980)은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적 활동, 재정적 상태 등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

박순미(1999)는 주부양자들이 '노인-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에서 가장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고, 이은희(1997)는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개인적·사회적 제약 즉 노인의 간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가족관계에 부담을 받고,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방해 받고, 그리고 친구와의 교류를 방해 받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치매노인 부양이 자신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각하지 않을수록, 치매노인과 친밀할수록, 그리고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정서적 보상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한다. 유광수(2001)도 치매노인 부양주부들은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점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치매노인을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고한다. 또한 조명희·권오정·최정신·김대년(2000)은 치매의 정도가 심할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양동기가 자식으로서의 책임 때문인 경우, 며느리인 경우가 심리적인 부양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가족관계가 나쁘게 변화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느끼는 심리적 부담 역시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경자(1994)는 부양자가 자신이 치매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자신이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가장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Stephens, Franks 그리고 Townsend(1994)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여 역할과중을 느끼는 주부들도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보상의 느낌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상황에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Glasser와 Wexler(1985), Haley, Levine, Brown, Berry 그리고 Hughes(1987), Green과 Monahan(1989)은 치매노인 부양자가 부양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양스트레스가 훨씬 낮다고 말하면서, 이는 부양자가 피부양자 및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부양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순미(1999) 역시 치매노인 부

양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은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지지모임과 같은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들 견해와는 달리 Schultz와 Williamson(1993)은 부양스트레스에는 부양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양보다는 부양자 자신이 사회적 지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해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적하며, 김희경(1995)도 치매노인 부양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친구나 친척은 있지만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면서 겪는 고통을 며느리의 입장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족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 3. 가정자원과 부양스트레스

#### 1) 객관적 가정자원과 부양스트레스

객관적 가정자원과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간의 관계는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양주부의 연령과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George와 Gwyther(1986)은 성인자녀보다 노인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하고, Fitting et als.(1986), 송현애·이정덕(1995), 유광수(2001)도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러나 20대 주부와 40대 주부의 부양스트레스를 비교한 정수진(1998)은 20대 주부가 40대 주부들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40대 주부들은 20대 주부들에 비해 효의식이 강해 전통적인 효의식으로 부양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어 이 효의식이 부양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완충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 이은희(1997)는 보살피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세대의 부양자들이 훨씬 더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정현숙(1998), 마정수(1995), Pratt(1987)는 부양자의 연령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정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남유리(1989), 최덕경(1992)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스트레스가 낮다고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장윤옥(1997)과 최정선·이정우(1999)은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일수록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말하고, 이광주(1988), 이안나(1991)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또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은희(1997)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양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

한편 최해경(1991)과 Montgomery, Gonyea 그리고 Hooymann(1985)은 가정의 재정상태는 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결정 요소이며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 반면 유광수(2001)는 월소득이 501만원 이상이 주부들이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은희(1997), 주현희(1999)는 이 두 변인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는 부양자가 가진 효의 관념과 부양하고 있는 노인이 치매환자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노부모를 가정에서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의 관념, 노인이 치매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부양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치매환자들을 위한 전문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치매노인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가족들은 치매노인의 치료 및 부양을 위해 특별한 별도의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주현희, 1999). 반면에 조명희 등(2000)은 부양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은 부양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치매노인 부양비용이 한계가 없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재정적 상태는 물질적 차원에서 가족의 외부환경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치매노인 부양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치매노인 부양주부 가정의 월소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임정빈 외 4인, 1994)고 하겠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남유리(1989)는 45세 연령층의 전업주부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고, 장윤옥(1997)과 이정우·황경혜·정진희(1994)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는데 이는 취업주부가 취업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 잇점이 전통적인 주부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긴장과 과중한 역할부담으로 인해 상쇄되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부양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들보다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Scharlach et al., 1991) 이는 직업역할이 주부들의 노인 부양의 책임을 줄여주기 보다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압박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이영숙 외 2인, 1999).

반면 송현애·이정덕(1995)은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시부모 부양스트레스가 높다고 하고, 이은희(1998)도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 하며, 이는 주부양자가 직장생활이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활동을 가짐으로써 교대간호자와 간호대행자의 도움을 받기가 쉽고, 또 직장 근무시간 동안은 노인부양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하루 간호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양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권중돈(1994)도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주부양자들의 부양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이는 연구대상자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양자들의 대부분이 시간적 압박을 받지 않고, 가정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종이나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취업으로 인한 역할 부담은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김윤정·최혜경(1993), 이경자(1995)는 부양자의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월평균 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 가정자원은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객관적 가정자원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최근 가정자원의 유용성이 부각되어 가정자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정자원의 적정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정도, 즉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을 측정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김경숙·이정우, 1995; 장윤옥, 1997; 현은민, 1994; Rommel, 1989)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Rommel(1989)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은 객관적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개인이 자신의 가정자원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적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문제 해결 상태로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본 절에서는 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연실(1996)은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가정자원이 많다고 지각하는 것을 실제로 가진 가정자원이 많은 경우와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단순히 가정자원이 많다고 지각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문제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나 가정자원의 활용 및 탐색에는 실제 상황보다는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가족들의 상황에 대한 지각과 평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가정자원을 적정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 완충적인 역할을 하여 주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이은희(1998)는 부양자들이 치매노인 부양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할수록, 노인의 치료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높으며, 주부양자가 노인의 간호에 대해 주위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한 도움에 대해 만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말한다.

현은민(1994)은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면서 이는 주부가 가정내 가정자원관리 활동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자원이 부족하다고 지각할 때 생활에 있어 남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경숙·이정우(1992)는 주부가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원이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부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자원을 개발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윤옥·정서린(1997)은 가정자원적정도지가 높을수록 주부의 인적, 물질, 환경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낮다고 말하고, 김경아(1990)도 가정자원적정도지와 심리적 만족도를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가정자원의 수준 뿐 아니라 객관적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적정도지가 수준을 높임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자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가정자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비록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자원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의 양보다 자신의 가정자원을 더 적절한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은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 3) 통제소재 유형에 따른 부양스트레스

개인의 성격특성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의 하나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원이다(Casta & McCare, 1983 ; Hooyman & Kiyak, 1988). 이러한 성격특성 중에서도 통제소재는 개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특성이며(김현수, 1991)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설인자, 1989).

통제소재는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기 자신 혹은 힘있는 타인이나 운명, 그리고 운이나 우연과 같은 외부환경 중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성격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중재하는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통제소재는 그 성향에 따라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신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통제성과 원인을 타인이나 운, 우연, 운명과 같은 외부환경에 두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외적통제성으로 분류되고 있다(장윤옥·정서린, 1997).

내적통제자들은 외적통제자들보다 순응적이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불평을 더 적게 하며 과업지향적이고 개인적 적응을 더 잘하고(Doherty, 1981) 생활을 더 잘 통제할 뿐만 아니라(Brown, Heltsley & Warren, 1982) 생활에 더 만족한다(Baker, 1976). 장윤옥·정서린(1997)은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이 내적통제성이 강한 주부들보다 인적, 물질적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황상하(1995)는 내적통제자들이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낀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높아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는 달리 Matthews(1982)는 내적통제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행동이 무력해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적통제자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김애숙(1986)도 내적통제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외적통제자보다 더 많은 불안을 보인다고 한다.

한편 Hooker, Monahan, Shifren 그리고 Huchinsen (1994)은 부양자의 성격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Paulhus(1983)는 자신의 주변상황을 통제하는 능력과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의 정도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가 다르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부양스트레스를 조사한 송현애·이정덕(1995)도 외적통제성이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 정현숙(1998) 역시 개인적 효능감과 대인관계 통제력은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제소재와 같은 성격 특성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양으로 인해 생기는 부양스트레스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가정에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며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부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1998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조사결과를 기초로 질문지의 내용과 형식을 수정·보완하였고 치매노인 부양주부들에게 성실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대구시에 위치한 치매전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치매노인의 부양자, 대구지역에 위치한 각급 학교 학생들을 통해 확인된 치매노인 부양자, 각 구별 보건소와 동사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의 부양자, 그리고 연고자들을 통하여 알아낸 치매노인 부양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소재를 먼저 조사·파악하였다. 그 다음 연구자가 치매노인 부양주부들과 직접 접촉하여 연구취지와 목적, 그리고 질문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상황을 파악한 후 부양주부에게 질문지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승낙을 받았다. 그 후 각 가정을 방문하여 부양주부에게 질문지를 직접 전달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동봉한 질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어 응답하게 하는 우편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7월에서 10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21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62부를 회수하였으나 이중 부실하게 되었거나 미혼자녀가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14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중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치매노인의 일반적 특성 (N=141)

변 인	내 용	인 원(%)
노 인 연 령	60 - 70세	14( 9.9)
	71 - 80세	62(44.0)
	81 - 90세	51(36.2)
	91세 이상	14( 9.9)
유 병 기 간	1년 미만	24(17.0)
	1년 - 2년	26(18.5)
	2년 - 3년	24(17.0)
	3년 - 4년	22(15.6)
	4년 - 5년	16(11.3)
	5년 - 6년	12( 8.5)
	6년 이상	17(12.1)
노 인 학 력	무 학	59(41.8)
	초 등 학 교 졸	49(34.8)
	중학교졸 이상	33(23.4)
노 인 성 별	남	38(27.0)
	여	103(73.0)
결 혼 상 태	동 거	31(22.0)
	사 별	106(75.2)
질 병 유 부	유	89(63.1)
	무	52(36.9)

그리고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즉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연령은 41~50세가 67명(47.5%), 51세 이상이 46명(32.6%)이며, 치매노인을 가장 많이 부양하고 있는 부양주부는 며느리임(100명, 70.9%)을 알 수 있다.

<표 2> 부양주부의 일반적 특성 (N=141)

변 인	내 용	인 원(%)
주 부 연 령	40세 이하	28(19.9)
	41 - 50세	67(47.5)
	51세 이상	46(32.6)
노 인 과 의 관 계	며 느 리	100(70.9)
	딸	33(23.4)
	친 · 인척	5( 3.6)
	기 타	3( 2.1)
월 소 득	100만원 이하	22(15.6)
	101 - 200만원	52(36.9)
	201 - 300만원	38(26.9)
	301만원 이상	29(20.6)
주 부 학 력	중학교졸 이하	36(25.5)
	고등학교 졸	47(33.3)
	대학교졸 이상	58(41.2)
취 업 여 부	유	45(31.9)
	무	96(68.1)
노 인 관 련 1 일 가 사 노 동 시 간	5시간 이하	66(46.8)
	6 - 10 시간	33(24.1)
	11시간 이상	42(29.1)

또 연구대상자 중 취업주부는 45명(31.9%)이며, 전업주부는 96명(68.1%)이다.

노인관련 1일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5시간 이하인 주부가 66명(46.8%)이고, 6~10시간인 주부는 33명(24.1%), 그리고 11시간 이상이나 되는 주부도 42명(29.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객관적 가정자원

객관적 가정자원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정의 평균 월소득 변인으로 구성된 개방 기입식과 선택기입식의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는 Rommel(1989)의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장윤옥·정서린(1997)의 척도를 기초로 총 2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25문항을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내용을 검토한 후 인적(12문항), 물적(9문항), 지역사회자원(4문항)에 대한 적정도지각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46.5%를 설명하며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각 요인별로 .80, .88, .85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중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의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은 상위 25%를 상집단으로, 하위 25%를 하집단으로, 나머지 50%를 중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3) 통제소재 척도

통제소재 척도는 Hiatt와 Reinger(1986)의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되었거나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3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14문항을 통제소재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뒤 요인 1은 운이나 우연(4문항), 요인 2는 자신의 의지(4문항), 요인 3은 외부의 강력한 힘이나 운명(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가 사건의 원인을 그 요인에 많이 귀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주부의 통제소재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소재 척도의 3개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두 집단은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의지에 귀인시키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사건의 원인을 운이나 우연, 외부의 힘이나 운명에 더

적게 귀인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유형을 내적통제집단(59.55%), 그 나머지를 외적통제집단(40.45%)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 변량의 4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  $\alpha$  계수는 .69이다.

#### 4) 부양스트레스 척도

부양스트레스 척도는 Zarit et als.(1980)이 개발한 치매노인 부담 면접 척도를 사용한 주현희(1999)의 척도를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노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로 인한 죄책감이나 우울, 그리고 노인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해 느끼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서적 스트레스(5문항), 요인 2는 노인을 부양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스트레스(3문항), 요인 3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을 돌보아야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노인을 부양해야 할 때, 그리고 노인이 주부에게만 의지하는 것 같아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 스트레스(4문항), 요인 4는 노인을 보살피는 일로 인해 친인척들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느끼는 스트레스 또는 다른 가족원과 노인 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문항들을 포함하므로 가족 및 친인척 지지 스트레스(9문항), 요인 5는 노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노인이 자신을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3문항), 요인 6은 노인의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양자들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사회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4문항)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요인별로 각각 .90, .90, .79, .82, .71, .80이다.

<표 3>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른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결과

Effect	Wilks	Approx. F	Hypoth. DF	Error DF	P	
객관적 가정자원	주부연령	.927	.856	12	266	.592
	주부학력	.807	2.506	12	266	.004**
	월 소득	.714	2.624	18	374	.000***
	취업여부	.923	2.046	6	134	.035*

\* p<.05

\*\* p<.01

\*\*\* p<.001

###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요인분석, 다변인변량분석(MANOVA),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른 주부의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객관적 가정자원(주부 연령, 학력, 월소득, 취업여부)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정서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 가족 및 친인척 지지, 노인과의 관계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각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주부학력(F=2.506, p<.004), 월소득(F=2.624, p<.000), 취업여부(F=2.046, p<.035)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부의 학력에 따라 부양주부의 정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졸 이하 학력의 주부들이 대학교졸 이상 학력의 주부보다 정서적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고등학교졸 학력의 주부들은 다른 집단의 주부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중학교졸 이하 학력의 주부들이 대학교졸 이상 학력의 주부보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양스트레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 이은희(199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부양스트레스를 각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부의 월소득에 따라서는 부양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주부들이 월소득이 201만원 이상인 주부들보다, 월소득이 101~200만원인 주부들은 월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주부들보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더 높고 100만원 이하인 주부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재정상태와 주부의 부양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 최해경(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가정의 재정상태와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한 이은희(1997), 주현희(1999)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또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주부들이 월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주부들보다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월소득이 201~300만원인 주부들은 사회적



<표 4>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른 주부의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N=141)

객관적 가정자원(N)		부양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 스트레스		가족 및 친인척 지지 스트레스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주부학력	중 학교(36)	3.09b	.95	3.00b	1.17	3.16	.86	2.94	.69	2.33	.67	3.08b	.90		
	고등학교졸(47)	2.88ab	.64	2.59ab	.88	3.09	.76	2.75	.61	2.35	.87	2.89ab	.79		
	대학교이상(58)	2.53a	.61	2.19a	.69	3.00	.66	2.81	.63	2.22	.69	2.62a	.66		
	F 값	7.137***		9.096***		.468		.953		.416		4.162*			
월 소득	100만원이하(22)	3.14	1.00	3.20c	1.26	3.11	.93	2.81	.79	2.21	.80	3.06b	.97		
	101-200만원(52)	2.84	.70	2.74bc	.83	3.02	.76	2.81	.62	2.35	.76	3.01b	.71		
	201-300만원(38)	2.64	.54	2.28ab	.65	3.15	.69	2.86	.53	2.39	.75	2.66ab	.69		
	301만원이상(29)	2.64	.81	1.98a	.84	3.02	.66	2.80	.69	2.14	.67	2.53a	.80		
	F 값	2.611		10.199***		.290		.061		.774		4.014*			
주부 취업여부	유(45)	2.88	.76	2.48	.92	3.06	.71	2.87	.59	2.31	.76	2.82	.74		
	무(96)	2.60	.71	2.63	1.02	3.08	.84	2.72	.74	2.25	.73	2.85	.90		
	F 값	4.568*		.726		.013		1.659		.199		.059			

\* p<.05    \*\* p<.01    \*\*\* p<.001

지지 스트레스에 있어 다른 세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월소득과 학력에 따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일수록 가정의 월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월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은 주부들은 치매노인 부양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노인의 이상행동이나 증상에 대처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부양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정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charlach et als.(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 결과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노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관련하여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다른 전업주부들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취업주부들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부양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치매노인에게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다 여전히 효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부양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업주부에 비해 치매노인을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이는 우리 나라처럼 효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주로 자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취업으로 인해 보살피야 할 노부모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는 주부의 지각이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주부의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인적, 물적, 지역사회자원) 정도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 각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인적자원적정도지각(F=2.235, p<.011), 물적자원적정도지각(F=3.610, p<.000)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속변인별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결과

Effect	Wilks	Approx. F	Hypoth. DF	Error DF	P	
가정자원	인적	.825	2.235	12	266	.011*
	물적	.739	3.610	12	266	.000***
지각	지역사회	.885	1.264	12	266	.240

\* p<.05    \*\* p<.01    \*\*\* p<.0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적자원적정도지각 정도에 따라 주부가 지각하는 정서적, 경제적, 가족 및 친인척 지지, 노인과의 관계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자원적정도지각이 높거나 중간정도인 주부들이 인적자원적정도지각이 낮은 주부들보다 경제적, 가족 및 친인척 지지,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

<표 6>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른 주부의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N=141)

가정자원 적정도지각(N)	부양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 스트레스		가족 및 친인척지지 스트레스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인적자원	上(34)	2.81ab	.65	2.28a	.65	2.97	.68	2.78a	.58	2.13a	.58	2.56a	.65
	中(76)	2.63a	.64	2.43a	.85	3.00	.72	2.71a	.63	2.23a	.83	2.81ab	.73
	下(31)	3.18b	.97	3.04b	1.25	3.35	.83	3.13b	.63	2.63b	.59	3.16b	.95
	F 값	6.406**		6.506**		2.967		4.989**		4.529*		4.974**	
물적자원	上(36)	2.61	.65	1.96a	.67	3.01	.62	2.83	.63	2.23	.71	2.48a	.76
	中(70)	2.80	.68	2.50b	.77	3.07	.77	2.77	.59	2.31	.81	2.88ab	.66
	下(35)	2.97	.93	3.18c	1.12	3.12	.83	2.92	.74	2.31	.67	3.08b	.93
	F 값	2.060		18.123***		.187		.620		.161		5.721**	

\* p<.05      \*\* p<.01      \*\*\*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인적자원적 정도지각이 높은 주부들이 낮은 주부들보다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노인 부양자들이 노인의 간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가족관계에 부담을 받고, 친구와의 교류를 방해 받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며, 치매노인 부양이 부양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각하지 않을수록,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정서적 보상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양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한 이은희(1997)의 연구결과, 치매노인 부양에 대한 보상의 느낌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경우 부양상황에서 더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한 Stephens 등(1994)의 연구결과, 그리고 노인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한 장덕민(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은 시간, 지식·정보, 건강, 남편이나 자녀 및 친인척들의 지지 등을 포함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적정도지각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수단적·정서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노인 부양 때문에 친인척 관계가 나빠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관련되는 가족 및 친인척 지지 스트레스, 그리고 노인이 자신을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해 주부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는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 노인을 대하는 주부의 태도와 관련되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치매노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다른 주부들보다 많고, 다른 친인척들로부터의 도움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인적자원적정도지각이 중간 정도인 주부들이 인적자원적 정도지각이 낮은 주부들보다 정서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은 주부들은 중간 정도이거나 낮다고 지각한 주부들과 정서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지각하는 물적자원적정도지각 정도에 따라 주부의 경제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적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은 주부들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주부들보다, 그리고 중간 정도인 주부들은 낮은 주부들보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고,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물적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은 주부들이 낮은 주부들보다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적자원적정도지각이 중간 정도인 주부들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적자원에 대한 주부의 적정도지각이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물적자원적정도지각이 높은 주부들은 노인을 위한 의료 시설이나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노인을 잠시 동안이나마 사회시설에 맡기는 비용을 지불함에 있어 다른 주부들보다 어려움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통제소재 유형에 따른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결과

Effect	Wilks	Approx. F	Hypoth. DF	Error DF	P
통제소재 유형	.888	2.822	6	134	.013*

\* p<.05      \*\* p<.01      \*\*\* p<.001

### 3. 통제소재 유형에 따른 주부의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통제소재 유형(내적통제집단, 외적통제집단)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 각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통제소재 유형(F=2.822, p<.013)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표 8> 통제소재 유형에 따른 주부의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 (N = 141)

통제소재유형(N)	정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 스트레스		가족 및 친인척 지지 스트레스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내적통제집단(84)	2.69	.68	2.40	.91	2.93	.73	2.75	.63	2.10	.66	2.74	.77
외적통제집단(57)	2.94	.84	2.73	.99	3.27	.73	2.93	.65	2.58	.79	2.95	.82
F 값	3.983*		4.114*		7.138**		2.904		15.262***		2.247	

\* p<.05      \*\* p<.01      \*\*\* p<.001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적통제집단의 주부들이 내적통제집단의 주부들보다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송현애·이정덕(1995)과 정현숙(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외적통제집단의 주부들은 문제 상황이나 결과의 원인을 운이나 우연, 힘있는 타인이나 운명에 주로 귀인시키고 문제상황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즉 외적통제집단의 치매노인 부양주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보다 편하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한결같이 공손하지 못한 것 같아 정서적 스트레스를, 노인 부양으로 인해 부과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 스트레스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을 돌보며 치매노인 부양의 힘든 상황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 스트레스를, 그리고 인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노인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를 내적통제집단의 부양주부들 보다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가정자원에 따라 부양주부가 지각하는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양주부들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를, 가정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자원적정도지각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인지자원에 대한 적정도지각이 높을수록 정서적, 경제적, 가족 및 친인척 지지, 노인과의 관계적,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적자원에 대한 적정도지각이 높을수록 경제적, 사회적 지

지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적정도지각이 중간 정도인 주부들이 낮은 주부들보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소재 유형에 따라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내적통제집단이 외적통제집단에 비해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 노인과의 관계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부양주부의 학력과 통제소재가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더 많은 하위영역의 부양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인지자원에 대한 적정도지각이 물적·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적정도지각과는 달리 심리적 부담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의 부양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특수한 스트레스에 효율적이고 통찰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인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치매노인 부양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이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은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 부양주부가 처한 상황이 주부 본인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적통제성이 높은 부양주부는 자신의 운명으로 귀인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치매노인 부양에 관한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서비스와 주부의 내적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 객관적 가정자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또한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가정자원적정도지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통해 몇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정도지각 및 통제소재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가정자원이 다면역적인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는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의 어떤 영역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한 본 연구에서 객관

적 가정자원과 통제소재 뿐 아니라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치매 노인 부양스트레스간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충분한 논의와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치매노인 부양주부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정자원과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의 유병기간과 간병인의 유무, 그리고 치매 증상 정도 등의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는 이들 변인들을 고려한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부양스트레스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2년 1월 15일  
 심사일 : 2002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03년 6월 23일

#### 【참고문헌】

- 권중돈(1994).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권중돈(1996). 치매노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 노인복지정책연구 1, 151-185.
- 김경숙·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1994). 치매노인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최혜경(1993). 치매노인의 장애기간과 부양자의 대처자원이 부양자의 부담 및 부양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62-83.
- 김태현·전길량(1996).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77-95.
- 김현수(1991). 직무만족과 작업오류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집단성지각과 내외통제성향의 중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김희경(1995). 치매노인 부양자와 정상노인 부양자의 심리적 부담 비교.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연구 비교.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마정수(1995). 치매노인의 문제행동이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순미(1999). 치매노인가족의 부양실태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 욕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서리나(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도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설인자(1989).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에 따른 성공공포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송현애·이정덕(1995).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15-124.
- 신은영·김경연(1996). 아동,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 관여, 내적통제감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4(6), 195-206.
- 유광수(2001). 노인성 치매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125-147.
- 이경자(1995). 치매노인의 간호문제와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2), 30-51.
-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호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행동유형과의 관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박경란·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 학지사.
- 이은희(1997).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담 감소를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전략.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치매노인 부양가족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2), 211-239.
- 이정우·황경혜·정진희(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4), 1-15.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서울 : 학지사.
- 장덕민(1996).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 정상노인 부양자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병옥(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장윤옥(1997). 가정자원, 통제소재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87-300.
- 장윤옥·정서린(1997). 가정자원적정도지각과 통제소재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141-153.
- 전세경(198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1998).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위기감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1998). 치매노인 부양자의 치매관리전략과 정서적 적응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조명희·권오정·최정신·김대년(2000).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9, 33-65.
- 주원희(1999). 치매노인의 기능장애 및 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와의 관계.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차성란(1997). 농촌주부의 사회관계망, 자원교환, 지역사회자원인지 : 대인적 자원부분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45-58.
- 차승희(1991). 가족스트레스와 부부간의 대처전략 및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최덕경(1992). 가정관리행동시 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최연실(1996). 청소년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정선·이정우(1999).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적응력이 가정관리

-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63-81.
- 최해경(1991). 심신 기능 손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수발자 부담의 한국에서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18, 175-205.
- 황상하(1995).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민(1994). Factors in determining resources adequacy perception of rural couples. *대한가정학회지* 32(1), 19-30.
- Brown, J.J., Heltsley, M.E. & Warren, R.D.(1982). Planning in low income families : Influence of locus of control and dyadic consensus on realistic standard sett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67-75.
- Baker, E.K.(1976). Relationship of retirement and satisfaction with life events to locus of 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7(9B), 47-48.
- Casta, P.T. & McCare, R.R.(1983). Contribution of personality research to an understanding of stress and aging. In McCubbin, M. B., Sussman & Patterson, J. M.(eds.). *Social Stress and Family*. New York : The Haworth Press, 157-174.
- Clipp, E.C. & George, L.K.(1993). Dementia and cancer : A comparison of spouse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3(4), 534-541.
- Fitting, M., Rabins, P., Lucas, M.J. & Eastham, J.(1986).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s : A comparison of husbands and wives. *The Gerontologist* 26(3), 248-252.
- George, L.K. & Gwyther, L.P.(1986). Caregivers for dementia patient: Complex determinants of well-being and burden. *The Gerontologist* 26(3), 245-247.
- Glasser, G.G. & Wexler, D.(1985). Participants' evaluation of educational/support groups for families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 *The Gerontologist* 25(3), 223-236.
- Green, V.L. & Monahan, D.J.(1989). The effect of a support and educational program on stress and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to frail elderly person. *The Gerontologist* 29(4), 472-477.
- Hiatt, A. & Reinger, V.A.(1986). Career and earner wives' preference for the use of time and use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time constrai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Hooker, K., Monahan, D., Shifren, K. & Huchinsen, C.(1994).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spouse caregivers : The role of personality. *Psychology and Aging* 9(2), 367-375.
- Hooyma, N.R. & Kiyak, H.(1988). *Social Gerontology -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 Allyn & Bascon.
- Mattews, K.A.(1982).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sychological Bulletin* 91(3), 292-323.
- Montgomery, R.J.V., Gonyea, J.G. & Hooyma, N.R.(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34(1), 19-26.
- Novak, M. & Guest, C.I.(1989). Caregiver Response to Alzheimer's disease.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8(1), 67-79.
- Pratt, C.V.(1987). Ethical concerns of family caregivers to dementia patients. *The Gerontologist* 27(5), 632-638.
- Pruchno, R.A. & Resch, N.L.(1989). Husbands and wives as caregivers : Antecedents of depression and burden. *The Gerontologist* 29(2), 159-165.
- Rommel, J.I.(1989). Wives' and husband' resources adequacy perception, conflict resolution and contextual variables : A longitudin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S.Y.(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
- Schultz, R. & Willamson, G.(1993). Coping with specific stressors in Alzheimer's disease caregiving. *The Gerontologist* 33(6), 747-755.
- Zarit, S.H., Reever, K.E. & Bach-Peterson, J.(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